

기술력 바탕으로 한 세계 종합회사로 성장

고품질 제품 생산을 통한 고객 감동 실현



김 동 수
(주)태평양종합산업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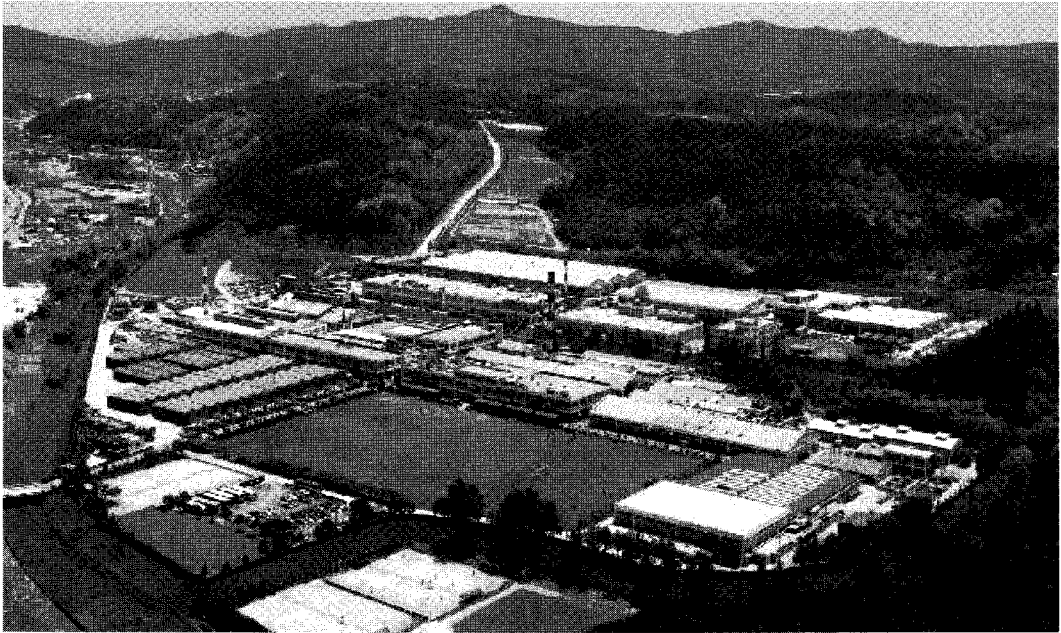
종합 부자재업체로 화장품 유리용기, 플라스틱, 금속포장재 분야를 선도해 가는 태평양종합산업(대표이사 김동수)은 고품질 제품생산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그 입지를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다.

김동수 대표이사는 “태평양종합산업은 가치창조-행동/실천을 바탕으로 집중과 선택의 전략을 통하여 인재육성, 사업육성, 고객가치창조 등 세계 최고의 화장품 부자재 전문기업으로 발돋움 하기 위하여 전 부문에 걸쳐 혁신적인 경영활동과 새로운 가치창조경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평양종합산업은 1973년 설립돼 1974년 태평양 화학 초자 사업부 인수와 1977년 금속공장 신축을 시작으로



▲ 태평양종합산업의 I.S 제병기



▲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태평양종합산업 전경

다년간 화장품 용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해 오며 국내 화장품 용기 업계를 리드해 오고 있다.

1990년 태평양종합산업(주)로 상호를 변경함으로써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 일본 제일초자와 경량화 및 NNPB 제조기술 제휴를 맺고 기술개발에 주력해 왔다.

태평양종합산업은 업계 최초로 ISO 9002 품질 인증 시스템을 획득함으로써 최고의 품질을 통해 최상의 제품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화장품병 및 향수병에 최적의

유리조성 및 자체 디자인 개발 적용 등 R&D 분야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997년에는 약 100억원을 투자해 신규 용해로를 준공해 기포의 최소화와 다양한 컬러 제품을 생산해 품질을 극대화시켰다.

태평양종합산업 그 당시 신규로는 화장품 전용으로는 4번째로 하루에 50톤의 생산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품질향상을 통해 고객만족은 물론 신시장 개척에 큰 역할을 해냈다고 설명했다.

이를 기점으로 태평양종합산업은 신규 용해로를 최대한 활용해 고 품질을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고객 만족 100%에 도전,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 용기 산업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지난 1998년에는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며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 아낌없는 투자를 통한 첨단설비를 갖추고 최고의 기술력을 통한 최상의 제품생산으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Pacific Industries Inc.

태평양종합산업은 초자를 비롯해 수지, 금속 등 화장품 부자재의 모든 것을 한 라인에서 생산이 가능, 화장품과 관련된 부자재를 일괄 생산할 수 있는 토탈 패키지 전문 기업으로 고객 감동을 위한 차별화 된 기술개발 및 최고의 제품을 생산코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평양종합산업은 컬러 포 휘스와 제품개발 전용라인을

도입해 다양해진 고객 욕구를 만족시키는 물론 다품종 소량화 체제에 대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고품질 저단가 제품 생산에 주력해 오고 있다.

제품 차별화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며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는 태평양종합산업은 고객 감동 실현을 목표로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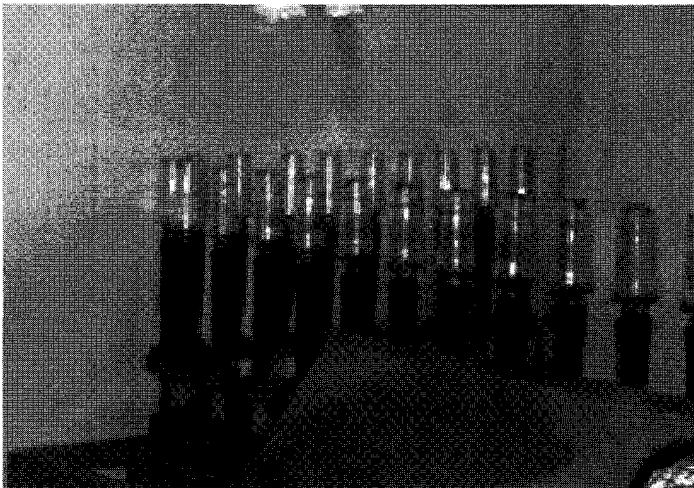
고객 감동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태평양종합산업은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진 기술을 도입, 세계적인 기술력을 앞세워 동종 업계를 리드해 나가고 있다.

■ 최상의 설비로 최고의 제품생산

태평양종합산업은 일일 50톤 규모의 플렉스 멜터 (FLEX - Melter)와 12톤 용해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1.S M/C 7대(6SEC 4대, 4SEC 1대, 2SEC 2대)를 보유하고 전 자동화 시스템화를 구축했다.

또한 후가공 라인으로 코팅기 3대, 불산기 1대, 캄만인쇄기 6대 및 소부로 3대르 갖추고 최상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고객의 신인도를 얻고 있다.

수지 사출 라인으로는 1백



▲ 태평양종합산업의 코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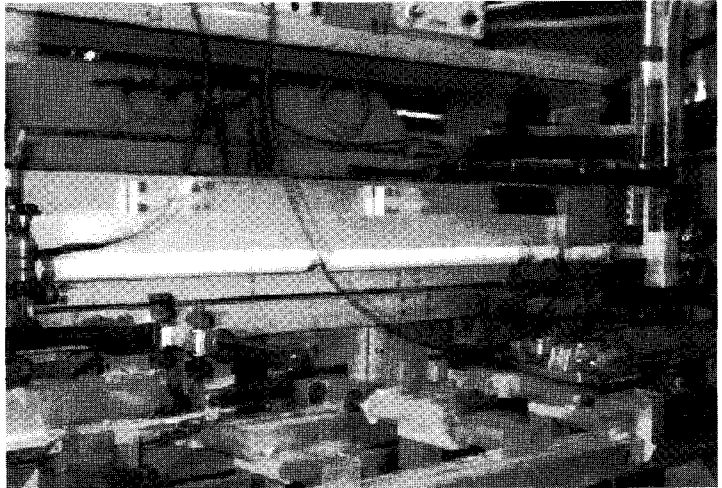
톤에서 2백50톤에 이르는 사출기 25대와 SPM, IBM 등 최신식 설비를 갖춰 견본용기 및 블로우(BLOW) 용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튜브(TUBE) 압출기 3대, 헤다기 6대, 인쇄 코팅기 2대를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프레스기(20톤에서 80톤 규모) 13대와 표면처리(도장, 양극산화, 전하)기 6대, 연마기 4대 DIA-커팅기 8대와 립스틱 생산을 위한 수?자동 조립기 2개 라인을 구축하고,고객의 다양한 니즈(needs)를 충족하고 있다.

■ **고부가가치 향수병으로 해외진출 박차**

태평양종합산업은 지난 2001년 11월 말 12톤로를 개축하여 2Section I.S M/C, 4Section I.S M/C 각 1대를 추가 도입해 소량다품종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판영업 및 해외 시장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일본 폴라, 유럽, 미주에 화장품 기초병 및 향수병,



▲ 태평양종합산업의 인쇄기

N/P병 등을 수출하고 있다.

N/P 소형병은 월 15백만개 ~ 20백만개 수준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연간 70억원 수준이다.

김동수 대표이사는 “태평양종합산업은 세계적인 화장품병 제조회사로 성장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라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앞세워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의 향수병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이미 세계 시장에서 그 품질을 인정받은 바 있어 앞으로의 성장은 무안할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태평양 종합산업은 지난해 619억원(수출 66억)의 매출

을 달성했으며 올해는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춰 세계 시장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태평양 종합산업은 올해 설비현대화 계획에 따라 T-600 I.S M/C 등 신규로 40억 규모의 투자가 진행 중으로 설비현대화 1단계 완료시점에서는 고부가·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해 C.S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위한 기업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태평양종합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

권해진 기자